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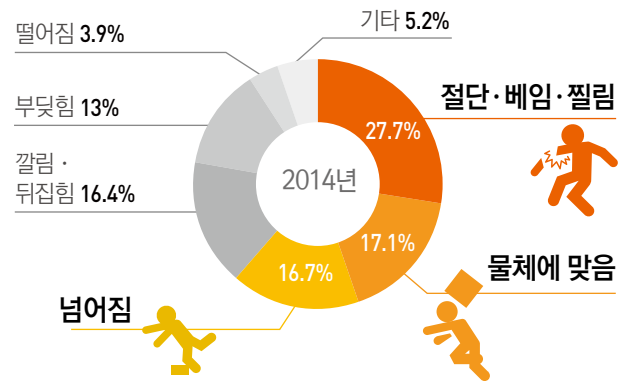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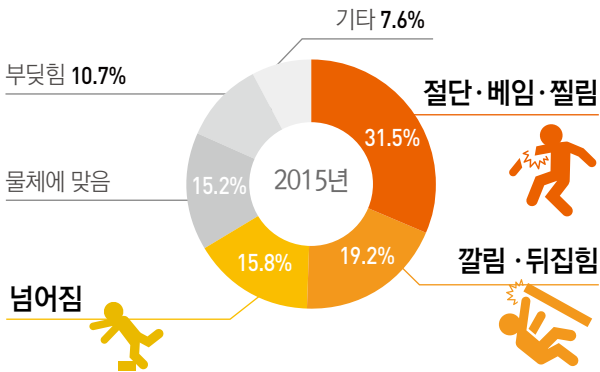


임업의 재해사례와 예방



재해현황

임업 장년근로자의 경우 매년 약 1,340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을 빈도별로 살펴보면 절단·베임·찢림, 깔림·뒤집힘, 넘어짐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

[임업 장년근로자 재해통계]



유해·위험요인

- 기계톱 작업 시 체인톱이 작업자 쪽으로 튀어올라 톱날에 베임
- 예초기 날이 돌 등에 부딪혀 파편에 맞음



안전대책 Key Point

절단·베임·찢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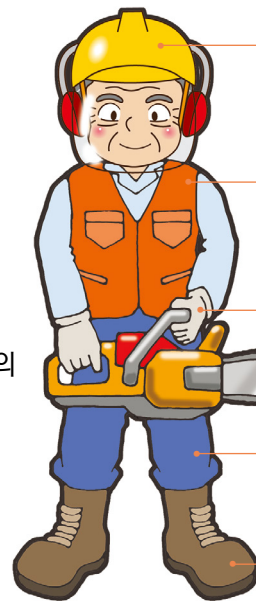
- 나무를 절단할 경우 몸을 가까이 대고 기계톱의 상부 또는 하부 등을 이용,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
- 날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항상 날을 연마해서 사용
- 낮의 날에 커버를 씌운 후 이동

물체에 맞음

- 예초기 작업 또는 가지치기 작업 중 예초기 날, 돌, 나뭇가지 등의 파편이 튈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구 착용
- 예초기 작업 시 주변 근로자와 10m 이상의 거리 확보

깔림·뒤집힘

- 벌목작업 시 걸려있는 나무 등이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작업



안전모

귀마개와 눈 보호용 가리개가 부착된 안전모 착용(붉은색 등 시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착용)

작업복

눈에 잘 띄는 색깔(시안성이 우수한)이며 통풍이 잘되고 몸을 완전히 덮을 것

안전장갑

방진기능 및 긁힘, 오일과 연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착용

안전바지(무릎보호대)

안전바지의 섬유조직에 의하여 체인의 동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신체보호에 도움이 됨

안전화

발가락 보호캡, 톱질보호 및 미끄럼방지 기능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됨



나무가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 대피하는 방법

- 나무가 쓰러질 때 기계톱을 내려놓고 재빨리 대피장소로 이동(기계톱을 들고 갈 경우 행동제한 때문에 안전을 더 위험)
- 쓰러지는 나무의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좌우 약 45° 범위로 대피 하고 큰 나무일수록 더 멀리 대피
- 대피 시 벌목나무의 가지 낙하, 덩굴 등에 의한 쓰러지는 방향 변화 등에 주의

재해사례
01

튀어오른 기계톱에 목을 맞음

산림현장에서 작업자가 이동 중 바닥에 놓인 작은 나뭇가지를 절단하기 위하여 기계톱을 대는 순간 킥백(반동)이 발생, 튀어오르는 기계톱에 목을 맞아 사망

? 재해원인

- 나무에 몸을 가까이 대지 않은 채 기계톱을 들고 팔만 뻗어 작업 중 기계톱 상부의 킥백 발생 부위가 나무에 부딪치면서 갑자기 튀어오름
- 기계톱 체인브레이크 미작동

+ 예방대책

- 나무 절단시 몸을 가까이 대고 기계톱의 상부 또는 하부를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 (킥백 발생위험 부위가 나무에 닿지 않도록 주의)
- 기계톱이 튀어오를 경우 멈출 수 있게 하는 체인 브레이크를 항상 점검 관리



재해사례
02

예초기 작업 중 돌 파편이 날아와 맞음

예초기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 날이 돌에 부딪혀 파편이 튀면서 작업자의 안면보호망을 강타, 망이 뚫리면서 작업자 실명

? 재해원인

-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보호구 미착용
- 예초기 날이 돌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규정 소홀

+ 예방대책

- 예초기 작업 시 예초기 날, 돌, 나뭇가지 등 파편에 대비, 안면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 착용
- 예초기 작업 시 돌, 굵은 나무 가지 등 방해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 실시

